

# 전자책에 대처하는 도서관의 자세

다소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1990년대에 전자책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전자책이 단순히 책의 새로운 한 형태가 아니라 아날로그 도서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은 당시 전자책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과 콘텐츠 부재 등의 이유로 지대한 사회적 관심이 직접적인 전자책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최근 전자책 산업은 모바일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세계적인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차츰 그 영향에 따라 전자책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있는 모양새이다. 전자책 산업의 성장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들은 저자와 출판사, 유통사 등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도서관 또한 책을 둘러싼 구성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일 것이다. 본 고에서는 전자책의 발전 배경과 최근의 추세를 살펴보고, 도서관의 입장에서 전자책을 바라볼 때의 관점에 대해 개인적인 소고를 밝히고자 한다.

## 전자책의 시작과 실패

전자책이라는 개념은 1971년 미국 마이클 하트(Michael S. Hart)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Project Gutenberg)에 의해 시작되었다. 공익적 성격의 이 프로젝트는 자발적인 지원자를 중심으로 저작권이 이미 소멸된 고전을 대상으로 전자책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최초의 전자출판으로 기록되고 있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공공 목적의 전자책 프로젝트들이 지속되고 있다. 유럽의 문화유산에 복수언어로 직접 접근 가능한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유럽연합(EU)의 유로피아나(Europeana)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약 230만 권 이상의 도서를 디지털화해 보관하고 있다.

구글의 구글북스라이브러리 프로젝트(Google Books Library Project) 또한 대규모의 도서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04년 12월에 도서와 독자를 연결해 주는 세상에 존재하는 각종 책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한다는 다소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4년부터 10년간 전 세계 아날로그 도서 3,200만권의 디지털화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모델이 초기의 목적과는 다르게 상업적인 유료사업으로서 본격 진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저작권 관련 기관과 계속적인 마찰이 예상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에는 구글이 미국출판사조합(Authors Guild)과의 합의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진행해 오던 '절판됐지만 저작권이 있는 도서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이 미국 법원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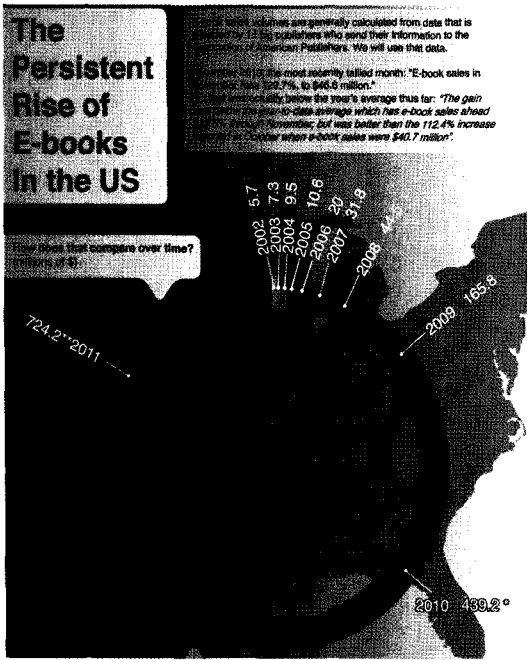
로부터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90년대의 전자책 시장은 주로 기술 중심의 시장이었다.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의 제공과 이용자가 원하는 읽기의 방식, 이용자가 원하는 유통의 경로 등 이용자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기술 경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도외시한 산업적 논리는 전자책 시장의 성장속도를 둔화시켰고, 기술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아 관련 중소기업들의 사업 축소 및 종단을 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자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시각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출판사는 종이책 시장이 전자책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인해 전자책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동기가 부족하였으며, 이용자 또한 아직 전자책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굳이 비용을 지불하고 디지털 파일을 구매하려는 문화 또한 형성되기 이전의 시점이었다. 더구나 국내 시장의 경우 전자책에 대한 표준화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업체별로 전자책 포맷 및 DRM 기술이 상이한 것 때문에 전자책을 읽기 위해 다종의 뷰어와 변환도구를 필요로 하는 환경은 독자의 유입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 환경 변화 그리고 전자책 시장의 도약

그러나 최근 전자책 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전자책의 눈부신 재기를 돕고 있다. 특히 아마존의 킨들 서비스 모델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전자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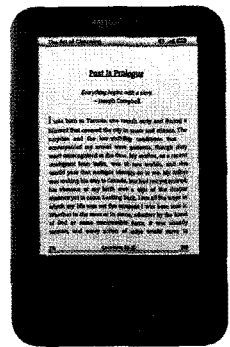
▲ 미국 전자책 시장의 성장(The Persistent Rise of E-Books, thenextweb.com)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며, 이해 당사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점이 설득력 있게 다가갔으며 양질의 전자책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아마존의 킨들과 같은 전자책 리더기가 e-Paper 등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기존의 종이책과 같은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데 한발 더 다가서고 있으며, 기술과 참신한 도서 서비스 모델이 접목된 전자책 단말기(전자책 전용 리더기, 태블릿 PC)들이 이용자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으로는 다양하게 존재하던 전자책 포맷이 IDPF(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의 개방형 공개 표준인 ePUB으로 점차 자리잡게 되면서 전자책 유통 발전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주요 기술 뉴스를 제공하는 The Next Web 에서 만든 인포그래픽(Infographic)에 의하면 미국에

서 전자책 시장이 매년 드라마틱하게 급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4,400만 달러 수준 이하였던 시장이 2009년 1억 6천 5백만 달러, 2010년에는 4억 3천 9백만 달러로 경이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마존에서는 지난 5월 19일에 킨들 전자책이 페이퍼백(Paperback)과 하드커버(Hardcover) 도서 모두를 합친 모든 인쇄본 도서의 판매량을 앞질렀다는 출판산업에서 기념비적인 이슈가 될 만한 뉴스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킨들 전자책을 판매한 지 4년만의 일로써 1995년부터 아마존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인쇄본 도서의 판매량을 급격한 속도로 추월한 것이다. 현재는 종이책 100권을 판매할 때마다 전자책 105권을 판매하는 추세라고 한다.



▲ 아마존의 킨들 전자책

##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활용

현재 도서관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활용하는 모델은 아직까지 전자 정보원의 하나로서 전자책 대출 시스템을 도입한 비교적 단순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관련 업계의 기사에 따르면 2011년 2월 현재 전국 400여 공공도서관과 300여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책 대출 시스템을 시행 중에 있으며, 개별 학교나 도서관마다 기간과 절차가 약간씩 다르지만 전자책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일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대출 시

템은 대다수 도서관이 동일하다.

해외의 도서관을 비롯하여 국내에서는 상명대학교를 시작으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리더기를 직접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다. 상명대학교중앙도서관은 전자책 대여 서비스를 위해 국내 전자책 업체와 제휴를 맺고 이 회사 단말기 30대를 도입하여 전자책 대출에 활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킨들을 통해 미국의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도서관 회원카드만 있으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다.

## 전자책에 대처하는 도서관의 자세, 콘텐츠보다는 플랫폼

이와 같이 현재의 도서관은 전자책 서비스를 아직까지는 디지털 장서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바라볼 때 장기적으로 콘텐츠보다는 플랫폼으로서의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책이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책의 형태가 아니라, 기존의 아날로그 책이 형성해 왔던 독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책 서비스는 독자에게 있어서 책과의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목직한 한 권의 단위로 전해졌던 책의 존재는 전자책의 형태를 만나게 되면서 씨줄과 날줄로 엮여진 텍스트의 집합으로 변모하게 된다. 독자들은 책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다양한 텍스트에 대해 주변의 친구들과 공감하고 함께 토론하고 싶어할 것이며, 전자책 서비스


는 책의 콘텐츠를 세부적인 텍스트로 구분하고 독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새로운 독서의 플랫폼을 선사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2010년 국내에 번역되어 출간된 사사키 도시나오의 『전자책의 충격』이라는 도서에서도 이와 같은 전자책 플랫폼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전자책이 AMBIENT가 되고, 맥락이 소셜 미디어로 유통되는 새로운 책의 세계에서는 많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무수히 많은 팔로어가 출현할 것이다. 이러한 매칭 모델은 '다대다'로, 독자에게는 자신의 취향을 최적화하기 쉬운 장치가 된다.”

- 『전자책의 충격』(사사키 도시나오, 179페이지) -

책과 독자와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전자책 플랫폼은 어디에 존재할 것인가? 전자책 리더기 회사와 전자책 유통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유통사, 독자들의 독립적인 커뮤니티 등 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그 기회가 열려 있겠지만, 도서관만큼 그 역할을 적절하게 훌륭히 수행할 만한 곳이 있을까?

그동안 도서관의 영역에서 사회의 압도적인 기술적 진보들이 상대적으로 뒤늦게 채택되어지고 그로 인해 변화의 중심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는 현상들을 여러 차례 보아 왔지만, 예상을 넘어서는 속도로 팽창하는 전자책의 영역에서만큼은 도서관이 사려 깊은 통찰력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가길 기대해본다. 



글 | 배 경 재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도서관협회 전문도서관위원회 위원  
kjbae@dongduk.ac.kr

### [참고 정보]

전자출판산업, 현황과 전망

한국콘텐츠진흥원 포커스 10-2(통권 제2호), 2010. 6.

전자책의 충격-책은 어떻게 붕괴하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사사키 도시나오 저, 한석주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07.12

“도서관, 전자책 대여 서비스를 아시나요”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222110413](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222110413)

Amazon.com Now Selling More Kindle Books Than Print Books

<http://phx.corporate-ir.net/phoenix.zhtml?c=176060&p=irol-newsArticle&ID=1565581&highlight>

How to download e-books from your local library

[http://news.cnet.com/how-to-download-e-books-from-your-local-library/8301-17938\\_105-20049244-1.html](http://news.cnet.com/how-to-download-e-books-from-your-local-library/8301-17938_105-20049244-1.html)

The Persistent Rise of E-Books [Infographic]

<http://thenextweb.com/media/2011/01/26/the-persistent-rise-of-e-books-infographic>